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김효정

대원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

Relations among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Kim, Hyo Jeong

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Je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among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of college students. **Methods:** This study was designed as a descriptive correlational research. The participants were 314 college students in Gyeongbuk provinc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3 to Oct 5 in 2009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WIN (Version 12.0). **Results:** Suicidal ideat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r = -.20, p < .001$; $r = -.24, p < .001$, respectively) as well as self-identity ($r = -.37, p < .001$). Self-identity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aternal and attachment ($r = .16, p = .006$; $r = .23, p < .001$, respectively).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suicidal ideation may be decreased when college students have higher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Strategies to improve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are needed in near future.

Key Words: Parents, Attachment, Identity, Suicid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자살 생각을 및 시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대부분의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에서는 자살사망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0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31.2명으로 2009년보다 153명이나 증가하여 최근 몇 년간 OECD 국가 중 자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자살률의 10% 감소는 약 5,000억 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며, 특히 가까운 미래를 책임질 10대, 20대의 자살이 10대 사망원인 중 1위라는 점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

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자살에 대한 원인을 확인하고 예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자살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각도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10대 후반과 20대에 걸쳐 있는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 해당한다.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성인에 가깝게 성장하였으나, 심리·정서적으로는 미숙하여 내적으로 불안정하고, 외적으로는 보다 넓어진 대인관계와 학습 및 사회적 활동을 해결해 나가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4; Sin & Oh, 1993). 또한 사소한 일상 사건에도 자신에 대한 감정이나 행동, 삶에 대한 통제능력이 부족하여 주변의 급격한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인내하고 해결하려는 힘이 부족하여 보다 쉬운 방법으로 문제해결

주요어: 부모, 애착, 자아정체감, 자살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im, Hyo Jeong

Department of Nursing, Daewon University College, 316 Daehak Road, Jecheon 390-702, Korea
Tel: +82-43-649-3287 Fax: +82-43-649-3689 E-mail: rellakim@hanmail.net

투고일: 2011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 2011년 12월 26일

을 하고자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한다(Chung, Ahn, & Kim, 2003; Park & Koo, 2009; Sin & Oh, 1993). 이러한 발달단계 특성상 청소년 자살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그들이 속한 가족, 학교, 이웃 및 기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체계가 청소년의 자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자살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으로 여러 변인들 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 환경적 요인 간에 스트레스를 완충해 줄 수 있는 대처방안이 필요하다(Chung et al., 2003; Hwang, 2003; Lee & Kim, 2007; Moon, 2006; Park & Koo, 2009).

부모는 자녀의 가장 좋은 마음의 안식처이며, 자녀들이 스트레스에 지친 몸과 마음을 피할 수 있는 보호기제이다(Moon, 2006). 애착은 부모와 자녀가 맺게 되는 정서적 결속으로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애착 인물이 활용되어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표면적으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으로 작용한다(An, 2008; Kern, Klepac, & Cole, 1996; West, Spreng, Rose, & Adam, 1999).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 수용으로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되며 자아정체감의 확립은 자아를 재통합하여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Jung, 2008). 자아정체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그들의 인생관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지 않아 미래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수립하는 데 혼란스러워하며, 매사 충동적이거나 동요되기 쉽다(Heo, 2009).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우울, 비행, 약물남용, 자살시도 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양상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서 나타내는 미숙한 대처능력으로 평가되고 있다(Sin & Oh, 1993).

우리나라의 대학생은 고학점 취득과 취업이라는 연결고리에서 경쟁과 갈등을 경험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생활한다. 더구나 최근 심화된 경제상황의 악화와 실업대란은 그들의 모호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자신을 비판하여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Min, 2005). 또한 대학생은 자신의 자율성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동안의 부모 관계를 수정 통합하여 변형이 가능한 시기로 이미 형성된 자신의 표상을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Armsden & Greenberg, 1987; Ma, Park, & Kang, 2011). 자살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Chung et al., 2003; Hwang, 2003; Toprak, Cetin, Guven, Can, & Demircan, 2011) 지금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과의 관련성을 통해 자살을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Lee & Kim, 2007; Moon, 2006; Toprak et al., 2011) 그러나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비록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자살생각은 자살행동의 예측지표로 중요하기 때문에(Beck, Kovacs, & Weissman, 1979) 본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자살에 대한 예측지표로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나 희망을 다양한 차원에서 측정하여 현재 지닌 의식적인 자살의도의 정도를 수량화한 것이다(Shin, Park, Oh, & Kim, 1990). 본 연구에서는 Shin 등(1990)이 사용한 총 1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부모에 대한 애착

애착은 부모와 자녀가 맺게 되는 정서적 결속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아기에 형성된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로 정의되며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적 표상을 의미한다(Armsden & Greenberg, 1987; Ma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Chung (1994)이 사용한 총 28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기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자아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상으로 자신에 대한 신념, 수용적 태도, 현실에 대한 건전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반영하며(Heo, 2009) 본 연구

에서는 Cho (2006)가 사용한 총 1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북 소재 2, 3년제 일 대학의 보건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다. 우선 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응답을 원치 않은 경우는 철회할 수 있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였으며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26부 수거되었고 설문내용에 불충분하게 답한 총 12부를 제외한 총 314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Beck 등(1979)이 개발한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 SSI)을 Shin 등(199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Shin 등(1990)은 많은 피험자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한 원래의 문항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하였다(Shin et al., 1990). SSI는 자살시도 전에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검사결과는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고, 자살위험에 대한 임상가의 평가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Beck et al., 1979). SSI는 총 19문항의 3점 척도로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 욕구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hin 등(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7이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2)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친구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개정판 전체 75문항 중 Chung (1994)이 번안한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사용하였다. IPPA의 부모 애착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의사소통문항 영역의 10문항, 신뢰감 영역의 10문항, 소외감 영역의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소외감 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을 제외한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측정된다. 의사소통과 신뢰감 문항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소외감 문항의 점수를 뺀 것이 개인의 애착 점수가 되며, 본 연구에서는 부 애착과 모 애착을 각각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표시하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Chung (1994)의 연구에서 부 애착과 모 애착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91,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각각 .93, .92이었다.

3)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Park (1996)이 개발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 Cho (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표시하는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 (200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 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둘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고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넷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산출하였다.

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일 대학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72.9% (229명)로 남학생 27.1% (85명)보다 많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45.2% (142명)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50.6% (159명)이었으며, 경제수준이 '중'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4.8% (235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68.8% (21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 중 72% (226명)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고, 자살한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7% (18명)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314)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85	27.1
	Female	229	72.9
Grade	1st	142	45.2
	2nd	84	26.8
	3rd	88	28.0
Religion	Yes	159	50.6
	No	155	49.4
Economic status	Upper	10	3.2
	Middle	235	74.8
	Poor	69	22.0
Major satisfaction	≥ Satisfied	216	68.8
	Moderate	73	23.2
	≤ Dissatisfied	25	8.0
Live with parents	Yes	88	28.0
	No	226	72.0
Family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Yes	18	5.7
	No	296	94.3

2.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4.87 ± 5.37 점이었다. 부 애착 하위영역의 의사소통 평균은 34.41 ± 7.06 점, 신뢰감은 37.48 ± 6.41 점, 소외감은 29.03 ± 5.17 점으로 부 애착의 평균은 42.85 ± 10.23 점이었다. 모 애착 하위영역의 의사소통 평균은 36.37 ± 6.61 점, 신뢰감은 38.72 ± 5.78 점, 소외감은 29.28 ± 5.10 점으로 모 애착의 평균은 45.81 ± 9.21 점이었다. 자아정체감의 평균은 39.96 ± 6.25 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자살생각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살생각은 여학생이 남학생($t = -4.05, p < .001$)보다 높았고, 1

Table 2. Mean Score for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Variables	Mean ± SD	Min	Max
Suicidal ideation	4.87 ± 5.37	0	26
Father's attachment	42.85 ± 10.23	4	63
Communication	34.41 ± 7.06	10	50
Confidence	37.48 ± 6.41	14	50
A sense of alienation	29.03 ± 5.17	13	40
Mother's attachment	45.81 ± 9.21	13	67
Communication	36.37 ± 6.61	13	50
Confidence	38.72 ± 5.78	19	50
A sense of alienation	29.28 ± 5.10	13	40
Self-identity	39.96 ± 6.25	13	52

Table 3. Difference of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N = 314)

Variables	Categories	Suicidal ideation			Father's attachment			Mother's attachment			Self-identity		
		Mean ± SD	t/F	p	Mean ± SD	t/F	p	Mean ± SD	t/F	p	Mean ± SD	t/F	p
Gender	Male	3.06 ± 4.51	-4.05	<.001	44.62 ± 10.51	1.86	.031	47.28 ± 8.78	1.67	.047	41.81 ± 6.81	3.25	<.001
	Female	5.54 ± 5.52			42.20 ± 10.08			45.28 ± 9.33			39.27 ± 5.89		
Grade	1st	5.76 ± 5.78^a	3.75	.025	40.95 ± 10.55^a	4.63	.010	44.02 ± 9.47^a	5.06	.007	39.11 ± 5.91^a	3.57	.029
	2nd	3.94 ± 4.91^b		a > b	44.67 ± 9.30^b		b, c > a	47.10 ± 8.97^b		b, c > a	39.93 ± 6.27		b > a
	3rd	4.31 ± 4.91			44.19 ± 10.15^c			47.46 ± 8.74^c			41.35 ± 6.57^b		
Religion	Yes	4.56 ± 4.92	-1.02	.153	43.10 ± 10.56	.43	.333	46.57 ± 9.19	1.49	.068	39.70 ± 6.34	-.73	.230
	No	5.18 ± 5.80			42.60 ± 9.91			45.02 ± 9.20			40.22 ± 6.16		
Economic status	Upper	6.30 ± 5.98	1.19	.304	42.30 ± 20.63	1.56	.210	49.60 ± 12.50	1.59	.205	42.90 ± 7.81	2.28	.104
	Middle	5.03 ± 5.54			43.43 ± 9.55			46.02 ± 8.75			40.15 ± 5.93		
	Poor	4.09 ± 4.63			40.97 ± 10.35			44.52 ± 10.11			38.87 ± 6.92		
Major satisfaction	≥ Satisfied	4.06 ± 4.98^a	8.66	<.001	43.73 ± 9.91	2.57	.077	46.58 ± 9.41	2.81	.061	41.91 ± 5.38^a	45.48	<.001
	Moderate	6.33 ± 5.50^b		b, c > a	40.80 ± 9.99			43.65 ± 8.11			36.29 ± 5.55^b		a > b > c
	≤ Dissatisfied	7.56 ± 6.63^c			41.25 ± 12.87			45.40 ± 9.81			33.76 ± 6.46^c		
Live with parents	Yes	4.25 ± 5.02	-1.26	.103	42.36 ± 12.18	-.47	.311	45.52 ± 9.30	-.34	.364	40.33 ± 6.66	.66	.254
	No	5.11 ± 5.50			43.05 ± 9.39			45.92 ± 9.19			39.81 ± 6.09		
Family history of suicidal behavior	Yes	6.50 ± 5.55	1.32	.092	40.11 ± 8.60	-1.17	.120	45.22 ± 9.25	-.27	.390	38.11 ± 4.98	-1.29	.099
	No	4.77 ± 5.36			43.01 ± 10.31			45.84 ± 9.22			40.07 ± 6.31		

Table 4. Correlations among Suicidal Ide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Father's attachment r (p)	Mother's attachment r (p)	Self-identity r (p)	Suicidal ideation r (p)
Father's attachment	1			
Mother's attachment	.70 (<.001)	1		
Self-identity	.23 (<.001)	.16 (.006)	1	
Suicidal ideation	-.24 (<.001)	-.20 (<.001)	-.37 (<.001)	1

학년이 2학년 보다 더 높았다($F=3.75, p=.025$).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 '불만족 이하' 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보다 더 높았다($F=8.66, p<.001$).

부 애착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 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t=1.86, p=.031$) 1학년보다 2, 3학년의 부 애착이 더 높았다($F=4.63, p=.010$). 모 애착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모 애착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t=1.67, p=.047$) 1학년보다 2, 3학년의 모 애착이 더 높았다($F=5.06, p=.007$).

자아정체감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아정체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t=3.25, p<.001$), 3학년이 1학년($F=3.57, p=.029$)보다 더 높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보통', '불만족 이하' 순이었다($F=45.48, p<.001$).

4.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자살생각은 부 애착($r=-.24, p<.001$), 모 애착($r=-.20, p<.001$) 및 자아정체감($r=-.37,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부 애착, 모 애착, 자아정체감이 증가하였을 때 자살생각은 감소하였다. 또한 자아정체감은 부 애착($r=.23, p<.001$), 모 애착($r=.16, p=.006$)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부 애착, 모 애착이 증가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은 증가하였다.

논 의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의 자살생각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에 의하면 2009년 20-24세의 자살자 수가 남자 338명으로 여자 302명보다 더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일 지역, 일 대학에 국한된 점에서 전국적인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두 조사 결과는 실제적으로 자살시도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자살에 성공하는 확률은 남자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Hwang, 2003).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성차에 따른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성차에 의한 자살예방증재를 개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학년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았다. 이는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제한된 환경에서만 생활했던 학생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대학문화라는 새로운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결과로, 1년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2학년과의 자살생각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경험하는 대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첨가하여 자살생각을 분석하고 자살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보통', '불만족 이하'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살생각이 '만족 이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더 높았다. 이는 대상자의 불만족스런 정서 상태가 낮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우울을 유발하여 자살생각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Park, 2007).

남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Park과 Lee (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Ma 등(201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여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나 남학생들은 미래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들과 애착형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Hwang (20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모 애착이 여학생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부 애착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아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 청년후기 아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대학 2, 3학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1학년 보다 더 높았다. 이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부모애착이 더 높게 나타난 Kim과 Kim (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애착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각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Hwang, 2010).

일반적 특성에서 자아정체감은 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자아정체감은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이는 Lee와 Kim (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ee와 Kim (2007)은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남성주의 사고로 인해 여성은 상대적으로 학습된 무기력감에 더 영향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낮은 정체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

구결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높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한 Lee와 Kim (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 이상'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이 가장 높았으며, '보통', '불만족 이하' 순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스런 상태가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형성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다(Park, 2007).

다음으로는 대상자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정체감에 대한 관련성을 보았다. 자살생각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자살 충동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Moon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Moon (2006)은 스트레스는 우울을 촉진시켜 청소년의 자살을 유발하며, 이때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호기제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걱정과의 관계를 연구한 Kim, Lee와 Kim (2009)은 자녀의 걱정은 청소년의 생활맥락 및 일상생활에서의 잠재적 문제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갈등, 정서적 어려움, 위험 행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때 부모 애착이 높으면 낙관성과의 정적인 관계를 예측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적게 느끼게 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Park와 Koo (2009)는 청소년들은 부모와 자신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없을 때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하여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자살과 스트레스간의 완충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부모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Jang (2000)은 안정된 애착은 대인간 유대는 물론 개인의 대처기술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시켜 환경적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건설적인 전략을 발달시키게 한다고 하여 본 연구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Toprak 등(2011)은 대학생의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는 자기 손상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기 손상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불만족스런 가족관계를 설명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든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부적응 상태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Park (2007)은 자아정체감, 우울 및 자살사고의 관계 연구를 통해 자아정체감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정체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통합성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과 자살생각과 같은 내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Lee와 Kim (2007)은 자아정체감과 무망감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Jang (2000)은 자아정체감이 높은 대학생들은 그들의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문제집중적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Park와 Lee (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Yang (2003)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정체감 혼미 상태는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거부되었거나 무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여 청소년에 대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Jung (2008)은 부모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자아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존재의 독특성, 대인관계 역할인지, 자기주장, 자기수용을 더 높게 지각하여 자아정체감이 잘 형성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Jang (2000)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대학생의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중재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반면에 부모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은 자녀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내적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 연구결과는 자율성이 강조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학생 시기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재형성하여 부모애착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대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살생각,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2009년 9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대학생 314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1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살생각과 부모에 대한 애착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였을 때 자살생각은 감소하였다. 자살생각과 자아정체감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정체감이 증가하였을 때 자살생각은 감소하였다.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은 증가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은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증재로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의 성차 및 지역,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학년별로 분석하고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추후 자살이행 정도를 확인하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대학에서는 내적인 표상을 수정하여 긍정적 애착관계를 재경험시킬 수 있는 상담자를 육성하고 부모-자녀의 정서적 결속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 요구한다.

넷째, 대학에서는 부모-자녀의 정서적 결속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An, H. Y. (2008).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monito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 Myung University, Seoul.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Cho, M. S. (2006).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 Kyunkwan University, Seoul.
- Chung, J. S. (1994). *The relationship of self-identity, independency and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Chung, H. K., Ahn, O. H., & Kim, K. H. (2003). Predicting factors on youth suicide impuls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0, 107-206.
- Heo, J. C. (2009). Effects of self-identity by adolescents on types of career decision-making. *Journal of Game & Entertainment*, 9, 433-441.
- Hwang, Y. S. (2003).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home & school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Hwang, S. M. (2010). *The relationship among male college students attachment, parent's attachment and stud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H. S. (2000).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ego identity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role of coping ways. *Korean Journal Psychology: Developmental*, 13(3), 141-157.
- Jung, S. H. (2008).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self-identity on intimacy among christian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 Sine University, Seoul.
- Kern, L. R., Kelpac, L., & Cole, A. 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im, K. S., & Kim, K. H. (2009). The effect of par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parenting attitudes to parent-child attachment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51-59.
- Kim, Y. H., Lee, J. Y., & Kim, N. Y. (2009). Verification of optimism mediation effect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teenagers anxiety.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Education*, 18, 91-104.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The fifth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 Chungbuk: Author.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1).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s of deaths*. Retrieved September 8, 2010, from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 Lee, H. J., & Kim, M. H. (2007). A path 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n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14, 243-264.
- Ma, J. S., Park, J. H., & Kang, Y. S. (2011).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ttachment and par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2, 200-206.
- Min, Y. G. (2005). Evaluation on suicidal risk factors and suicidal though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31, 31-52.
- Moon, K. S. (200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Child Studies in Diverse Contexts*, 27, 143-157.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04). *The adolescent psychology*. Seoul: Kyo-yookbook.
- Park, A. C. (1996).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adolescents ego-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15, 140-162.
- Park, H. S. (2007).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 103-112.
- Park, H. S., & Koo, H. Y. (2009). The buffer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for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8, 87-94.
- Park, S. G., & Lee, Y. H. (2002). A study on family variables and personal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4, 141-160.
- Shin, M. S., Park, K. B., Oh, K. J., & Kim, A. S. (1990).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structural relation among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9, 299-314.
- Sin, M. S., & Oh, K. J. (1993). Identity crisis and maladaptive behavior in adolescence.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1, 71-84.
- Toprak, S., Cetin, I., Guven, T., Can, G., & Demircan, C. (2011). Self-harm,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among college students. *Psychiatry Research*, 187, 140-144.
- West, M. L., Spreng, S. W., Rose, S. M., & Adam, K. S. (1999).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felt security and history of suicidal behaviours in clinical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4, 578-582.
- Yang, S. O. (2003). *A study on the ego identity formation of the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 Sine University, Seoul.